

중앙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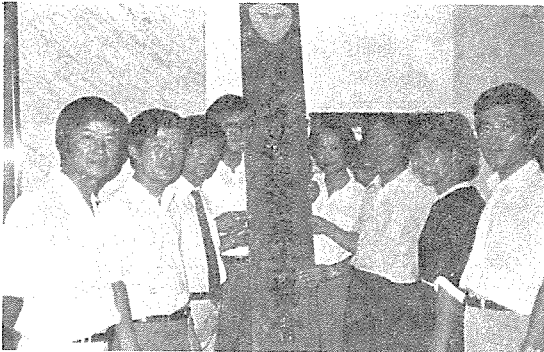
협회 현판식가져

1984년 8월 17일 18시 30분 협회사무실 이전에 따른 현판식이 정진우 협회장님을 비롯한 중앙회임원 및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가졌다.

20여 년의 염원이던 단독 사무실을 마련함으로써 날로 발전하는 협회의 앞날을 밝게 했다.

특히 현판식이 끝난 뒤 사무실에 마련된 자축연에서는 서로 서로의 건배를 들며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이날 각계 각처에서는 많은 선물을 보내음으로서 협회의 앞날을 축원하기도 하였다.



지부소식

중부지부보수교육

중부지부는 정기 보수교육 및 집단체를 8월 31일 국립의료원 물리치료실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번 주제는 88올림픽을 앞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sports P.T에 관해 미 육군병원의 석일현 선생님의 강의와 진지한 수강으로 성공리에 마쳤다.

제 목 : SPORTS P.T

연 사 : 석일현 선생님

장 소 : 국립의료원 물리치료실

일 시 : 1984. 8. 31 금요일. 18 : 30

참석인원 : 20명

한편 월례집담회에서는 지부장님이신 강정구 선생님께서 ACPT 서울총회에 관한 협회의 준비 상황과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는 말씀 및 토의가 있었다.

북부지부 소식

1984년 8월 30일 18 : 30 서울대학교병원 C 강당에서 한국병원에 근무하시는 박옥화선생님을 모시고 Cervical injury에 관하여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정기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백진 직전 회장님께서 A.C.P.T의 설립동기와 취지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보다 많은 회원이 A.C.P.T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서부지부소식

(84-2차 정기집담회 대의원보선)

일시 : 84-8-25(14:00~15:30)

장소 : 세브란스병원 소아재활원 강의실

참석자 : 표성봉외 23명

회원수 증가에 따른 대의원보선과 지부장이신 ACPT 서울총회에 관한 협회의 준비상황과 회원 협조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새로 선출된 대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종중 변(연세의료원 안동병원)

○임희숙(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남부지부소식

84년 8월 23일 한강성심병원에서 임성수지부장님 외 9인의 임원이 참석하여 오후 6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ACPT총회 및 학술대회에 대하여 효율적인 참여 방안 토의와, 지부총회에 관한 안전 및 보수교육을 위한 학술집담회에 대하여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부장님과 총무님은 ACPT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더욱 보이시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부 임원 개선과 결산보고를 위한 남부지부 총회가 84년 9월 13일 오후 6시30분부터 한강성심병원 강당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회원동정〉

신입 회원

황 선 경(1783)

김 형 준(?)

김 남 숙(1911)

백 금 회(1109)

이 지 영(1208)

정 득 순(1894)

윤 창 구(1758)

조 명 회(1196)

안 근 덕(1891)

오 세 형(861)

강 해 룡(1715)

이 정 민(1684)

김 종 환(1847)

전출 회원

김 흥권(341) 부산지부(백병원으로)

김 인숙(617) 경북지부(김천보전으로)

신 혜경(426) 서부지부

신 득철(597) 중부지부(중대부속 용산병원으로)

유 영선(689) 인천지부

차 공식(1186) 수원지부

맹 난영(1748) 인천지부(성모자애병원으로)

이 국행(1324) 인천지부

이 자영(1425) "

김 효정(1549) 북부지부(새한병원으로)

전입 회원

노 영경(441)

백 숙현(1598) 강남성모병원

경기·수원지부 소식

(84-5차 보수교육시행)

일 시 : 84. 8. 22. 17:00~18:30

장 소 : 성 빈센트병원 물리치료실

연 사 : 백 진 선생님

참석자 : 양임규외 31명

주제 : 우리나라 물리치료사 현실과 장래성에 관하여

- 1) A.C.P.T의 중요성과 그 가치.
- 2) 물리치료사와 협회가 걸어온 길
- 3) 물리치료사의 당면과제
- 4) 협회와 방침과 목표
- 5) 단독 개업의 방안과 문제점
- 6) 협회발전과 권익을 위한 우리들의 자세

(대의원 선출)

84-5차 보수교육과 함께 1985~1986 회기년도 대의원 선출이 있었다.

선출된 선임 대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양 임 규 : 안양 동일병원
 - 김 정 희 : 성 빈센트병원
 - 김 경 희 : 성 빈센트병원
 - 김 용 애 : 서민병원
 - 성 치 도 : 성혜의원
 - 박 명 일 : 동수원병원
 - 박 진 식 : 송탄 기독의원
 - 방 상 분 : 성 빈센트병원
- 계 8명

전남지부 소식

(84년도 신입회원 취업 현황)

박 회 애 : 대우병원

황 은 희 : 박현수 정형외과

나범주, 문은주 : 효성병원

진 선 미 : 김두원 신경외과

김 태 윤 : 광주보건전문대

김 은 경 : 목포 콜롬방병원

○84. 8. 18 : 한기룡 선생님 송별식

광주보건전문대 물리치료과에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5회 졸업생이 나오도록 근무하시던 한기룡 선생님께서 인천으로 가시게 되어 협회원과 보건전문대 물리치료과 동문들이 송별식을 갖었습니다.

그동안 좋았고 기쁜일들은 다 제자들에게 돌리시고 떠나시는 선생님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대구·경북지회소식

(定期集談會 및 補修教育)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경북지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대구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84회계년도 제 4차 보수교육 및 정기집담회를 가졌다. 이날 보수교육 강사에는 대구대학 재활원에 근무하며 본회 학술부장이신 김중선 선생님께서 뇌성마비의 작업치료에 대해서 시범과 더불어 강연하였다.

(會員 動靜)

이상철 회원	포한 신정형외과의원, 물리치료실 근무
정말순 회원	재 우 한 의 원, 물리치료실 근무
이창례 회원	재 한 한 방 병 원, 물리치료실 근무

세 상 우 광 석

오늘도 하늘은
파란 빛으로 웃고 있었고
또
거기 떠 있었다.

베갯머이 걸혀진
녹색커튼 사이로
두 눈은 행인을 쫓고 있었고
그러나
보이는 세계는 너무 작았다.

작은 세계는 작은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하늘은 파랗고
해는 빨갛고

바람은 비를 몰고와
대지를 적신다
태양은 지기도 전에
사라져야 한다 했다.

큰 것
작은 것
소리없이 웃는 인간은
큰 것을 얻은 자.

그러나
큰 것 후엔
근심스런 얼굴로
또 작은 것을 찾는 것을.....

〈삼육재활병원〉